

## 경부림프절군별 전이 판정에 있어 $^{18}\text{F}$ -FDG-PET의 유용성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,<sup>1)</sup> 핵의학과학교실,<sup>2)</sup> 방사선과학교실<sup>3)</sup>

최승호<sup>1)\*</sup> · 남순열<sup>1)</sup> · 김재승<sup>2)</sup> · 이호규<sup>3)</sup> · 김상훈<sup>1)</sup>

**목적** : 단순한 경부측(neck side) 전이 유무를 넘어 경부 림프절군(cervical lymph node level)별 전이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 $^{18}\text{F}$ -FDG-PET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**방법** : 2001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두경부 원발암으로 진단되어 치료전 검사로  $^{18}\text{F}$ -FDG PET을 시행한 환자중 수술전 항암제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원발암 및 경부림프절 절제술을 함께 시행한 32명의 환자(평균연령 57세, 남:여=27:5)에서 절제된 43개 경부측, 153개 림프절군의 전이여부에 관하여 조직병리학적 결과와 PET 및 CT/MRI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. 통계적 분석은 McNemar test로 PET과 CT/MRI의 진단적 정확도를 비교하였다.

**결과** : 총 153개의 림프절군 중 121개의 림프절군이 조직학적으로 전이가 없었고 이중 PET은 113개 림프절군

을, CT/MRI는 111개 림프절군을 전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. 경부림프절 단위로 평가시 PET의 진단적 예민도와 특이도는 각각 88%와 93%였고 CT/MRI는 각각 56%와 92%로서 예민도에 있어 PET이 CT/MRI보다 우월하였다. 경부측 단위로는 PET의 경우 예민도 95%, 특이도 87%였고 CT/MRI는 예민도 85%, 특이도 83%의 결과를 보였다. 환자단위로 비교했을 때 PET는 예민도 95%, 특이도 77%였고 CT/MRI는 예민도 89%, 특이도 69%였다.

**결론** : FDG-PET은 두경부암의 경부 림프절군별 전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CT/MRI보다 높은 예민도를 보이며 따라서 FDG PET은 두경부암의 수술전 림프절 병기결정 및 선택적 경부림프절절제술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.